

농어촌공사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MOU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2.20 16:38



[사진 제공=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20일 장성군청 본관에서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윤영일 장성지사장 등 업무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사업은 삼계면 월연리 12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91억원, 면적 13.1ha 규모로 임대형 스마트팜 및 에너지 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미래세대 양성과, ICT 기반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농업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이 지역 영농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일 지사장은 "본 사업이 아열대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성군, 농업인단체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